

제2차 심층 조사

한국아동패널 2012년 제2차 심층조사는
패널 아동을 대상으로 4종류의 검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1종류의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기의 발달 전반을 보다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2차 심층조사는 2012년 5~9월에 실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내년 3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아동패널은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하여 신생아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기초연구입니다.

만 3세가 된
우리 아이의 발달과 지도는?



본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10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_ 02-398-7713, 7709, 7704, 7707 FAX_ 02-730-3317, 3319
E-mail_ panel@kicce.re.kr Homepage_ www.kicce.re.kr/panel



신체 발달

만 3세는 에너지 덩어리!

● 아이들은 만 3세가 되면 2세에 비해 자라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지만 아이마다 달라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면 다른 아이들과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대신 1년에 두 번 정도 몸무게와 키를 재어 기록해 놓고 비교해보세요. 몸무게가 키보다 훨씬 빨리 늘었다거나, 6개월 전에 비해서 키가 크지 않았다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의해 보세요.

● 1년에 한 번씩 소아청소년과에서 성장과 발달을 체크하세요. 많은 아이들이 유아기에 이미 과체중이라고 해요. 에너지 덩어리인 이 시기의 아이들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앞에서 에너지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요즘 아이들은 조부모세대보다 1/4 정도 밖에 안 움직인다고 해요. **과체중과는 상관없이 아이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여 평생 습관이 되도록 해주세요.** 휴일에 뒀산 오르기, 공 던지기, 슐레잡기 같은 활동이 좋겠지요.

● 세 번째 생일이 지나고 나니 아이의 몸이 무척 민첩해진 것을 느끼시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덜 하고, 다른 아이들과 공을 던지고 받기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달리기, 차기, 점프하기, 깡총뛰기, 잡기, 던지기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답니다. 중심을 잡으면서 달리는 게 힘들어서 달릴 때에 몸이 앞으로 숙여지기도 하구요, 공을 차면서 달리기보다는 공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일에 더 집중하지요.

● 안전을 위해서는 어른의 보호와 감독이 필수이지만, 만 3세 아이의 활동에 너무 조바심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부딪치기도 하고 명틀기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자신의 신체와 공간에 대해 한계를 알게 되고요.** 그러니 아이가 방 안에서 혼자 놀 때는 간섭하지 말고 그냥 놀게 두면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 하면서 자신에게 맞추어 놀 거예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놀 때 또는 위험한 사물이나 기계 근처 특히 자동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부모님이 아이의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이를 놀릴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해 보라고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공을 쫓아서 차도로 뛰어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세발자전거의 바퀴에 손을 집어넣는 게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사물, 기계, 자동차의 움직임과 속도를 아이는 미리 알아차릴 수 없고, 결과도 예측하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른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해요.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입니다

정서 발달

만 3세는 상상 나라의 주인공!

● 만 3세의 상상력은 자유로워서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생각하기도 하고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가 하루 종일 상상과 현실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쁜 옷, 슈퍼맨 옷을 입었을 때는 자기가 공주나 슈퍼맨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귀신 이야기를 민기에 무서워서 흐느끼죠. **아이의 상상으로 인해 무서워하거나 기분 나빠할 때, 하찮게 여기거나 놀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 시기의 이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발달단계랍니다.**

● 가끔씩 아이와 상상놀이를 하세요. 놀이 중에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요. **상상놀이의 재미는 아이가 상상놀이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마음대로 상상을 펼쳐도록 놔두시고 엄마는 보조 역할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 겁주려고 또는 농담 삼아 "그렇게 꾸물대면 너 혼자 집에 두고 갈 거야.", "밥 안 먹으면 어린이집에 못 가."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는 그 말을 진짜로 믿어요.



사회성 발달

만 3세는 친구가 좋은 따라쟁이!

● 코알라처럼 엄마한테 꼭 붙어있던 2세 아이가 만 3세가 되면서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아이들과 놀게 돼요. 이걸 아이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간다는 좋은 현상이지요. 장난감을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기도 해요. 하지만 항상 그러는 건 아니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말을 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도 이야기 해보도록 하시고요. 엄마 자신이 화가 날 때는 아이 앞에서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고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엄마의 행동을 아이가 똑같이 따라 한답니다.

● 아이가 계속 화를 내면서 진정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떼어 놓으세요. 아이에게 왜 화가 났는지 물어보시고, 엄마가 아이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도 전하시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올바른 감정표현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해요.** 아이가 자기가 잘 못 한 것을 이해한 후에 상대 아이에게 사과하도록 하세요. 이 때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이가 사과하는 이유를 알아야 행동이 고쳐지거든요.

인지 발달

왜? 왜~? 만 3세는 호기심 꾸러기!

● 만 3세 아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왜?"라는 질문을 해요. "왜 해야 돼?", "왜 가는 거야?", "채는 왜 밥을 안 먹어?" 이런 모든 질문에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느끼지 마세요. 아이는 엄마의 설명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흥미도 없어요. **길고 어려운 설명보다는 "그게 너한테 좋은 일이지.", "그래야 안전해."식으로 간단하게 답을 해주면 돼요.**

● 추상적인 질문이라든가 "개는 왜 말을 못 해?" "오늘은 왜 비가 와?" 같은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생각 하셔야 해요.** 엄마가 답을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한 후에 함께 찾아보자고 하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도 있고, 지식을 넓힐 수도 있고, 명확하게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 그러면서도 아이는 아직 언어 사용에 한계가 있어서 몸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려고 해요. 엄마가 비행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이는 아마 팔을 양 옆으로 펼치고 방 안을 날아다니는 행동을 할 거예요. 아이의 이런 모습이 때론 성가시기도 하지만 이걸 아이의 재미를 위해서도, 배움을 위해서도 필요하답니다. **아이가 몸을 움직이는 건 새로운 단어나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거든요.**

● 만 3세는 여전히 한 면만을 생각해요. 예를 들어, 동전 5개를 모아 놓았을 때와 일렬로 벌려 놓았을 때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주스를 다르게 생긴 컵에 주면 자기는 적게 주었다고 형제와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